

# 사마귀의 최면치료 1례

박 회 관\*

## Hypnotherapy for Warts : A Case Report

Hee-Gwan Park, M.D.\*

— ABSTRACT ————— *Korean J Psychosomatic Medicine* 6(2) : 188-192, 1998 —

**B**rief hypnotherapy with daily self-hypnosis was used to a 20-year-old male patient who had severe warts on the fingers of both hands for 6 years. He had had several dermatological treatments, including attempts to remove the warts with topical chemotherapy, but the warts had always recurred. During the hypnotic sess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warts would begin to feel cool and disappear with imaginary laser. He responded well to ideosensory suggestions and was free of the warts within 5 sessions. Inquiry after 7 months revealed that no recurrence had taken place. Finally, it is stimulating to think that harmony between mind and body involving cell-mediated immunity can intervene in conditioning the course of the skin diseases.

**KEY WORDS :** Wart · Hypnotherapy · Psychoimmunology.

### 서 론

사마귀(wart or verruca)는 papova 바이러스군에 속하는 papilloma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양성종양으로서 자가접종이 가능하며 감염된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에 의한 전염이 흔히 관찰된다. 형태와 분포에 따라 임상적으로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심상성 사마귀(verruca vulgaris)는 표면이 거친 회색의 구진 또는 결절이 단일한 병변 또는 군집성의 병변으로 나타난다. 신체 어느 부위이나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흔히 관찰되는 부위는 손이다(이유신 1987).

사마귀의 치료는 환자의 연령, 병변의 범위 및 지속

기간, 환자의 면역상태, 치료하고자 하는 욕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법이 선택된다. 대부분의 치료법은 산(acid)이나 전기소작, 냉동요법, 절제술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병변을 파괴하는 것으로 치료 후에 재발하는 수도 적지 않다. 반면 시간이 경과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연 소실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예후는 양호한 편이지만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예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단일 치료보다는 여러가지를 복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이유신 1987). 흥미로운 점은 최면치료의 암시에 의하여 사마귀를 수일내의 단기간에 치료하였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다는 사실이다(Crasilneck과 Hall 1985 ; Du-Brenil과 Spanos 1993 ; Gardner와 Olness 1981 ; Johnson 1989 ; Johnson과 Barber 1978 ; Ob-ermayer와 Greenson 1949 ; Surman 등 1972 ; Ta-

\*의정부 한도병원 정신과

Department of Psychiatry, Hando Hospital, Uijongbu, Korea

sini와 Hackett 1977; Ullman 1959; Ullman과 Dudek 1960). 이는 정신과 신체의 상호 작용을 연구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Rossi 1986; Sarti와 Cossidente 1984).

최면의학의 역사가 일천한 국내의 경우에는 피부과 환자의 치료에 최면을 이용했다는 연구 보고가 아직까지 없었다. 저자는 사마귀, 소양증,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원형 탈모증, 건선, 신경피부염 등의 치료에 최면을 단독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응용한 경험을 하였기에 그 중에서 심상성 사마귀의 최면치료 1례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함으로써 정신신체의학(psychosomatic medicine)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고자 한다.

## 증 례

환자는 20세의 남자로 양손의 바닥과 등에 약 50개 이상의 심상성 사마귀 병변을 갖고 있었다. 첫 발생은 중학교 2학년때였고 당시엔 2 내지 3개 정도였으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상태가 심해져 현재처럼 많아졌다고 한다. 초기엔 손톱이나 칼로 뜯어내다가 자극으로 인해 출혈이 생기고 병변이 커지면서 숫자도 늘자고등학교 무렵부터는 피부과외사를 방문하여 냉동요법과 화학적 약물치료 등을 불규칙하게 5회 정도 받았으나 어느 정도 호전되는가 싶으면 한두달 내에 곧 재발하여 심리적 좌절을 느꼈다고 했다. 특히 이성교제를 할 시기에 무척 민감한 반응을 보여 자기도 모르게 손을 감추는 버릇과 함께 상대방에게 불결한 인상을 줄까 봐 위축되어 내향적 성격으로 변했다고 하였다. 저자는 군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성인의 최면 반응성(hypnotic responsiveness or hypnotizability)을 연구하면서 주기적으로 최면의학과 정신건강에 관한 강의를 하였는데, 본 증례의 환자는 자신의 사마귀가 최면치료의 적용이 된다면 한번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여 만나게 되었다. 가족력이나 발달력상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 면담과 다면적 인성검사상에서도 사고나 정동, 성격 등의 뚜렷한 정신병리는 없었다.

첫 번째 면담시간에 한국판 스탠포드 최면임상척도 상 1) 양손 붙이기, 2) 꿈, 4) 최면후 암시, 5) 기억상실 등의 항목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5점 만점중 4점으로 높은 최면 반응성을 나타냈다(박희관 1995). 또한 신체에 대한 정신의 조절 가능성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관념감각 암시(ideosensory suggestion)인 장갑 마비(glove anesthesia)를 시켜 침 자극으로 무통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마귀의 치료와 관련하여 어떻게 제거하면 좋을지 소망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보도록 하였다. 환자는 최첨단의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하는 레이저 빔으로 사마귀를 파괴하여 없애는 심상을 떠올렸다. 저자는 주 2회 간격으로 총 5회의 최면치료 동안 호전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함께 자아강화(ego-strengthening)를 하면서 기존의 연구가들이 언급한 냉각감을 통한 혈류와 영양의 차단 및 면역력 증강, 그리고 잠재의식의 자율적인 치유 등을 포함한 암시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기최면 연습을 통해 스스로 증상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최면유도 및 이완 방법으로 점진적 근육이완법을 첫 면담시부터 가르쳤다. Fig. 1과 Fig. 2는 치료 경과에 따른 양손의 호전을 보여준다. 다섯 번의 최면치료로 돌출된 사마귀는 거의 사라져 치료 종결에 동의하였고 7개월이 지난 추적때까지 재발은 없었다. 사마귀가 사라진 부위가 약간 변색된 상태였지만 환자는 증상 통제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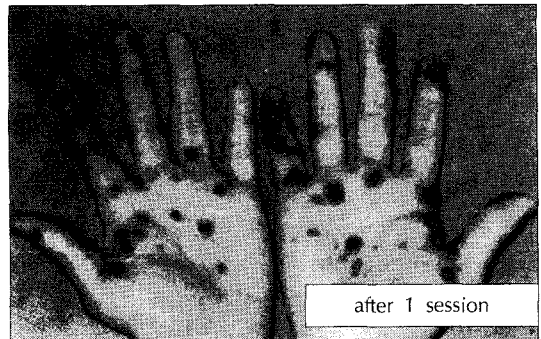


Fig. 1. After 1 se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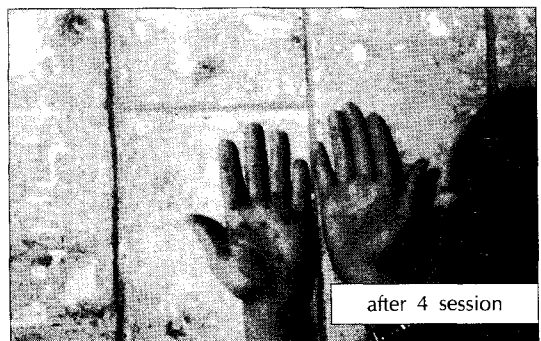


Fig. 2. After 4 session.

## 고 절

피부는 개인을 외부와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방어하는 경계로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달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머니와의 접촉에 의한 애착형성이나 자기탐닉의 도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접촉과 촉각에 의한 의사소통은 대인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또한 피부에는 지각신경과 자율신경이 분포하며 발생학적으로도 피부조직이 외배엽에서 신경계와 함께 분화되어 나왔기 때문에 정서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한다(Crasilneck과 Hall 1985). Chapman 등(1959, 1960)은 13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면 상태하에서 한쪽 팔은 열에 저항하여 피부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며 반대쪽 팔은 열에 쉽게 손상될 것이라는 암시를 준 후 열 자극을 양 팔에 동일하게 준 결과, 손상될 것이라는 팔에 훨씬 큰 조직 손상이 있었다고 하였다. Ikemi와 Nakagowa(1962)도 옷나무에 대한 피부 반응을 암시만으로 조건화하여 실제와 동일한 조직학적 변화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Black 등(1963)은 4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최면 암시를 통해 Mantoux tuberculin test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였다. 임상적으로 피부반응은 억제되었지만 조직학적으로는 혈관수축에 의한 삼출액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화상 환자의 동통 조절과 손상된 피부의 회복에도 최면 암시적인 접근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박희관 1997). Panconesi와 Petrini(1984)는 지연성 과민반응인 제 IV형 알레르기 반응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편평태선,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Papilloma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학적 또는 유전적 감수성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체액면역과 함께 세포면역이 특히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상인에 비해 사마귀 환자에서 T-lymphocyte 수가 떨어져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다(이유신 1987). 그리고 면역계가 훈련에 의해 조건화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도 있다(정도연 1993).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면치료는 심리적 측면을 통해 정신면역학(psychoimmunology or psychoneuroimmunology)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면역반응을 향진시켜 치료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Gorman

1991; Irwin과 Strausbaugh 1991; Panconesi와 Petrini 1984; Phillips와 Morimoto 1991). 한편 Clawson과 Swade(1975)는 면역학적 기전보다는 병변 부위의 모세혈관의 수축에 의한 정신생리적 효과로 사마귀의 소멸을 설명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Pliny(23-79 AD)가 음력 초하루에 병아리콩을 사마귀에 문질러 천조각에 싼 후 없애지라는 말과 함께 뒤로 던져버리는 방식으로 치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마귀의 암시적 치료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한다. 이는 Mark Twain의 소설 주인공인 톰 소여가 사용한 방법과 비슷하다(Panconesi 1984). 우리의 양반민속중에도 사마귀 곤충을 붙잡아 사마귀 병변 위에 놓고 뜯어 먹게 하면서 "사마귀 닳되 가져가면 콩 닳되를 갖다 주마"라고 세번 노래하면 없어진다고 했다(유안진 1985). Obermayer과 Greenson(1949)은 21세 여자 환자의 턱에서 시작되어 2년 동안에 얼굴, 목 등으로 번진 편평 사마귀를 최면으로 치료하였다고 한다. 그 동안에 podophyllin resin 등을 시행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1주에 한번씩 3회 최면치료로 사마귀는 사라졌고 6개월 후에도 재발은 없었다고 한다. 최면상태에서 환자는 냉습포를 얼굴에 붙였다고 상상하도록 하였다. 이어 점차 차갑고 창백해지면서 사마귀는 얼얼해지고 점점 사그라진다는 암시를 주었다. Obermayer는 암시와 함께 위약으로 무해한 물감을 바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Ullman과 Dudek(1960)은 15명중에 8명이 성공적으로 최면치료에 반응하였다고 보고하였다. Surman 등(1972)은 기존의 치료법으로 4번이나 시도하였으나 반응이 없던 9세 여아의 손과 얼굴의 31개의 사마귀를 성공적으로 최면치료 하였다고 한다. 먼저 환자의 왼손과 왼쪽 얼굴을 치료한 후 나중에 다른 쪽을 치료하였다. 최면상태에서 병변 부위가 얼얼해지고 점차 사마귀가 사라진다는 암시를 주었다. 또한 Surman 등(1973)은 최면치료를 받은 군에서는 53%가 호전을 보였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호전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 Tasini와 Hackett(1977)는 3명의 면역억제 상태의 환자의 사마귀 제거에 최면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피부과 치료를 몇 년씩 하였으나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자 최면치료를 적용해 보았다고 한다. 손 떠오르기(hand levitation) 식으로 최면 유도를 한 상태에서 사마귀는 점점 말라 떨어져나가고 사라진다는 암시를 주었다. 몇 주만에 사

라진 병변은 4개월 내지 8개월의 추적시까지 재발하지 않았다고 한다. Gardner와 Olness(1981)는 집에서 자기최면을 통해 사마귀로 가는 영양공급을 끊는 심상(imagery) 연습을 하도록 권하였다. Panconesi(1984)는 소아에서 호발하는 편평 사마귀에 최면치료가 특히 유용하다고 하였다. 부모 교육과 함께 다음 의진일에 환아가 자신의 사마귀를 표시한 신체 그림을 그려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볼로 그슬리면서 암시와 함께 몇일분의 위약을 처방하였으며 70% 정도가 2주 정도 지나면서 좋아졌다고 하였다. Crasilneck과 Hall(1985)은 최면을 통해 환자가 피부 환각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trance ratification)과 비의식(unconsciousness)의 치유력 그리고 신체에 대한 정신의 통제력을 강조하였다. 시원하고 차가워진다는 암시에 반응을 하면 이어 사마귀도 사라진다는 암시와 함께 자기최면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차가워진다는 암시는 생리적으로 모세혈관의 수축을 통한 차단을 염두에 둔 것이다.

본 증례는 높은 치료 동기와 충분한 최면 반응성을 가졌고 동반된 심각한 정신병리나 성격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단기간의 최면치료가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기최면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증상의 호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 자세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바이오피드백에 의한 자율신경계의 조절처럼 최면 암시에 의한 정신면역학적 자기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본 증례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Crasilneck과 Hall(1985)의 언급처럼 정신과의사가 사마귀를 처음부터 치료하기는 어렵고 자문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면적 개입에 익숙하지 못한 피부과의사라면 역시 처음부터 최면치료를 고려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부과의사가 최면치료적 접근에 친숙할 경우엔 다양한 임상 장면에 응용하여 환자의 심리정서적인 측면까지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증례의 환자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정신과의사인 저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

향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피부 질환에 최면적 개입이 보다 활성화되고 최면반응성과 치료 효과 등에 관한 잘 통제된 연구가 뒤따라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정신과 신체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분야인 정신면역학, 정신생리학, 정신내분비학 등에 관한 연구에 최면을 응용한 방법의 시도도 기대해 본다.

## 요 약

저자는 6년 동안 만성적으로 양손에 사마귀가 재발한 20세 남자 환자를 5회의 단기 최면치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였다. 증례의 사마귀는 7개월이 지난 추적때까지 재발하지 않았다. 화학요법이나 전기소작 등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법에 만족스런 반응이 없거나, 이완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자아를 강화하여 증상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기최면 연습을 포함한 최면치료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papova 바이러스에 의한 피부질환에 세포면역의 역할과 더불어 정신과 신체의 상호 연관을 연구하는 피부의 정신면역학 분야에 사마귀의 최면치료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중심 단어 :** 사마귀 · 최면치료 · 정신면역학.

## REFERENCES

- 박희관(1995) : 한국판 스펀포드 최면임상척도 : 성인용 (SHCS-K : Adult). 양주, 국군덕정병원
- 박희관(1997) : 최면을 이용한 화상 환자의 동통 조절. 정신신체의학 5(2) : 218-222
- 유안진(1985) : 한국 전통아동심리요법. 서울, 일지사, pp127-128
- 이유신(1987) : 임상피부과학. 서울, 여문각, pp111-112
- 정도연(1993) : 정신신체의학 역사의 재조명. 정신신체의학 1(1) : 3-13
- Black S, Humphrey JH, Niven JSF(1963) : Inhibition of Mantoux reation by direct suggestion under hypnosis. Br Med J 6 : 1649-1652
- Chapman LF, Goodell H, Wolff NG(1959) : Changes in tissue vulnerability induced during hypnotic suggestion. J Psychosom Res 4 : 99-105
- Chapman LF, Goodell H, Wolff NG(1960) : Changes in tissue vulnerability induced by hypnotic suggestion. Am J Clin Hypn 2 : 172
- Clawson TA, Swade RH(1975) : The hypnotic control of blood flow and pain : The cure of warts and the potential for the use of hypnosis in the treatment of cancer. Am J Clin Hypn 17 : 160-169
- Crasilneck HB, Hall JA(1985) : Clinical Hypnosis : Pr-

- inciples and Applications. New York, Grune & Stratton, pp370-376
- DuBreuil SC, Spanos NP(1993) : Psychological treatment of warts. In : Handbook of Clinical Hypnosis. Ed by Rhue JW, Lynn SJ, Kirsch I,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Press, pp623-648
- Gardner GG, Olness K(1981) : Hypnosis and Hypnotic therapy with Children. New York, Grune & Stratton, pp194-196
- Gorman JM(1991) : Psychoimmunology : A Darwinian approach. In : Psychoimmunology Update. Ed by Gorman JM, Kertzner RM,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pp1-8
- Ikemi Y, Nakagawa SA(1962) : Psychosomatic study of contagious dermatitis. J Med Sci 13 : 335-350
- Irwin MR, Strausbaugh H(1991) : Stress and immune changes in humans : A biopsychosocial model. In : Psychoimmunology Update. Ed by Gorman JM, Kertzner RM,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pp55-79
- Johnson RF(1989) : Hypnosis, suggestions and dermatological changes : A consideration of the production and diminution of dermatological entities. In : Hypnosis : The Cognitive-Behavioral Perspective. Ed by Spanos NP, Chaves JF, New York, Prometheus Books, pp297-312
- Johnson RF, Barber TX(1978) : Hypnosis, suggestions and warts :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implicating the importance of "believed-in efficacy". Am J Clin Hypn 20 : 165-174
- Obermayer ME, Greenson RR(1949) : Treatment by suggestion of verrucae planae of the face. Psychosom Med 11 : 163-164
- Panconesi E(1984) : Psychosomatic dermatology. Clin Dermatol 2(4) : 94-179
- Panconesi E, Petrini N(1984) : The future is here : Cutaneous psychoneuroimmunology as a premise. Clin Dermatol 2(4) : 78-93
- Phillips B, Morimoto RI(1991) :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Human hsp 70 Genes : Relationship between Cell Growth, Differentiation, Virus Infection, and the Stress Response. Berlin, Springer-Verlag, pp167-187
- Rossi EL(1986) : The Psychobiology of Mind-Body Healing : New Concepts of Therapeutic Hypnosi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Sarti MG, Cossidente A(1984) : Therapy in psychosomatic dermatology. Clin Dermatol 2(4) : 255-273
- Surman OS, Gottlieb SK, Hackett TP(1972) : Hypnotic treatment of a child with warts. Am J Clin Hypn 15 : 12-14
- Surman OS, Gottlieb SK, Hackett TP(1973) : Hypnosis in the treatment of warts. Arch Gen Psychiatry 28 : 439-441
- Tasini MF, Hackett TP(1977) : Hypnosis in the treatment of warts in immunodeficient children. Am J Clin Hypn 19 : 152-154
- Ullman M(1959) : On the psyche and warts. I. Suggestions and warts : A review. Psychosom Med 21 : 473-488
- Ullman M, Dudek SZ(1960) : On the psyche and warts. II. Hypnotic suggestions and warts. Psychosom Med 22 : 68-76